

▶ 주요 지표 일일 등락률

S&P 500	7,753.11pt	-0.06%
DOW	53,975.98pt	-0.11%
NASDAQ	26,605.36pt	-0.32%
STOXX 600	660.45pt	0.03%
美 국채 10년물	4.71%	6.13bp
美 국채 2년물	4.24%	4.68bp
달러 인덱스	99.81pt	0.27%
국제 유가 (WTI)	82.13\$	5.05%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유가 다시 반등하며 증시 압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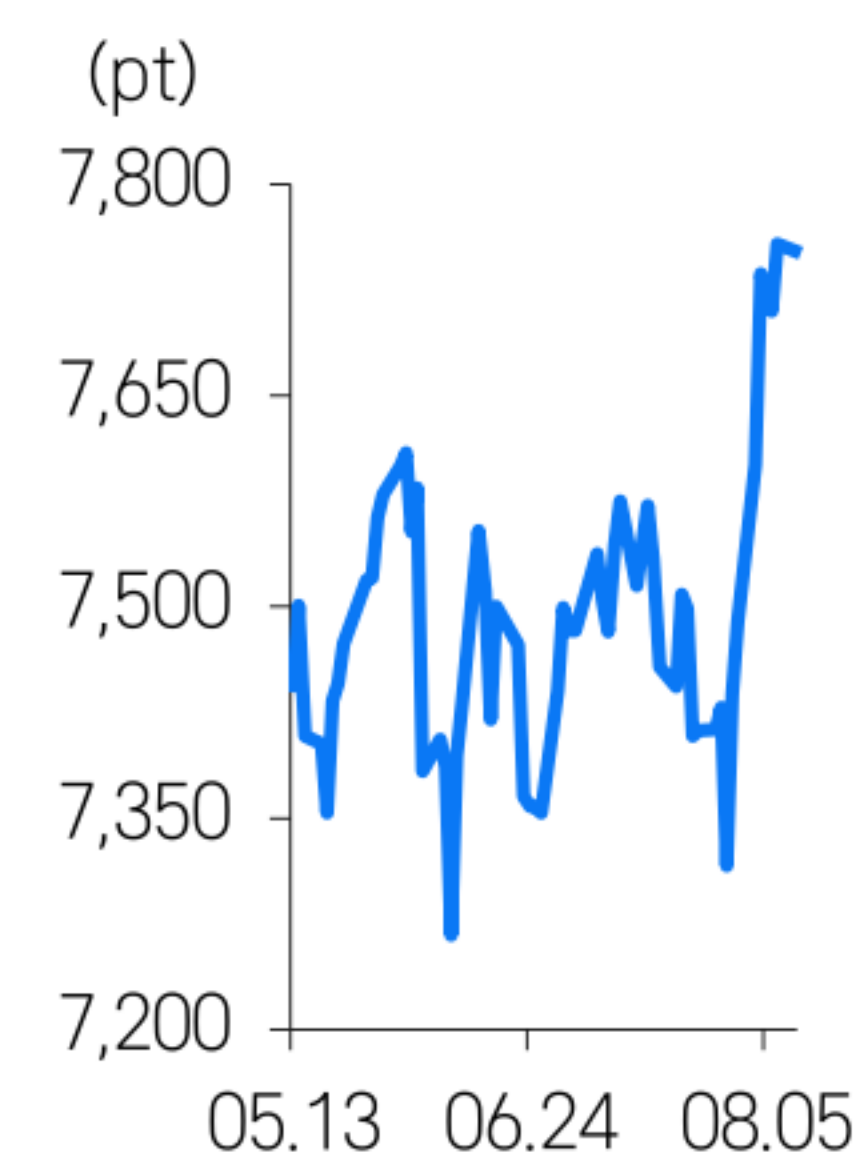
美-이란 협상 난항으로 WTI 유가 5%대 반등하며 80달러 선 상회
엔비디아, 월가 주요 금융사들과 5천억 달러 규모 자금 조성

지난밤 뉴욕 증시는 유가 상승에 따른 시장 금리 오름세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 부담으로 작용하며 하락 마감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에서 뚜렷한 진척 사항이 부재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경계심이 재차 높아진 모습입니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중재자들을 통해 대화를 재개할 방법을 찾는 중이라고 언급하면서도, 현재 진행 중인 오만과의 합의가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게다가 해협 개방은 여러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며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부분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주 곧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주장과 비교해 다소 후퇴한 모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상 난항 기류를 반영하며 WTI 유가는 전일 대비 5.05% 오른 82.13달러로 마감했고, 이는 시장 금리 반등세로 이어졌습니다. 당일 미 국채 10년물은 어제보다 6.1bp 뚝 4.71%를 기록했으며, 2년물 역시 4.7bp 상승한 4.24%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도 높아진 금리를 따라 0.27% 반등한 99.81pt로 마감했습니다. 이처럼 유가 강세가 다시 두드러진 가운데, 현지 시각 기준 금주 수요일 CPI와 목요일 PPI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시장의 관망세를 자극했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상보다 저조한 고용 지표로 인해 금리선물시장은 9월 인상 확률을 44%까지 낮춰 잡았지만, 이날은 다시 52%로 반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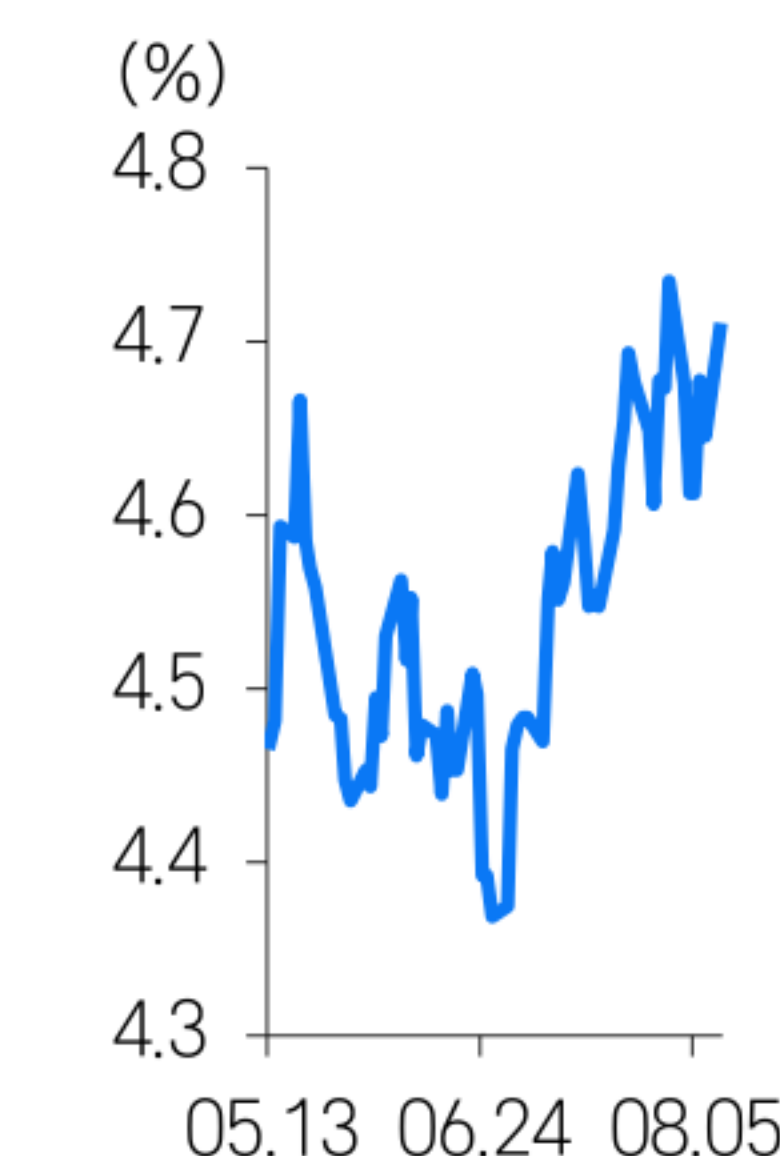
당일 S&P500은 0.06%, DOW는 0.11% 내렸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NASDAQ은 0.32% 하락했고, 필 반도체 지수는 2.94% 급락하며 여타 지수 대비 부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에너지, 헬스케어, 소재가 상대적으로 선전한 반면 부동산, 유틸리티, IT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시총 상위 대형 기술주들은 엇갈린 행보를 나타냈습니다.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과 함께 AI 투자를 위해 5,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나서기로 한 엔비디아는 2.86% 떨어졌습니다. 주요 IB가 목표가를 하향 조정한 애플 역시 1.53% 하락했습니다. 반면 전날 급반등세를 보였던 스페이스X는 4.23% 뛰었고, Microsoft와 아마존, 그리고 알파벳과 테슬라는 1% 전후의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대규모 유상증자 계획을 알린 인텔은 4.06% 하락 마감했습니다.

S&P500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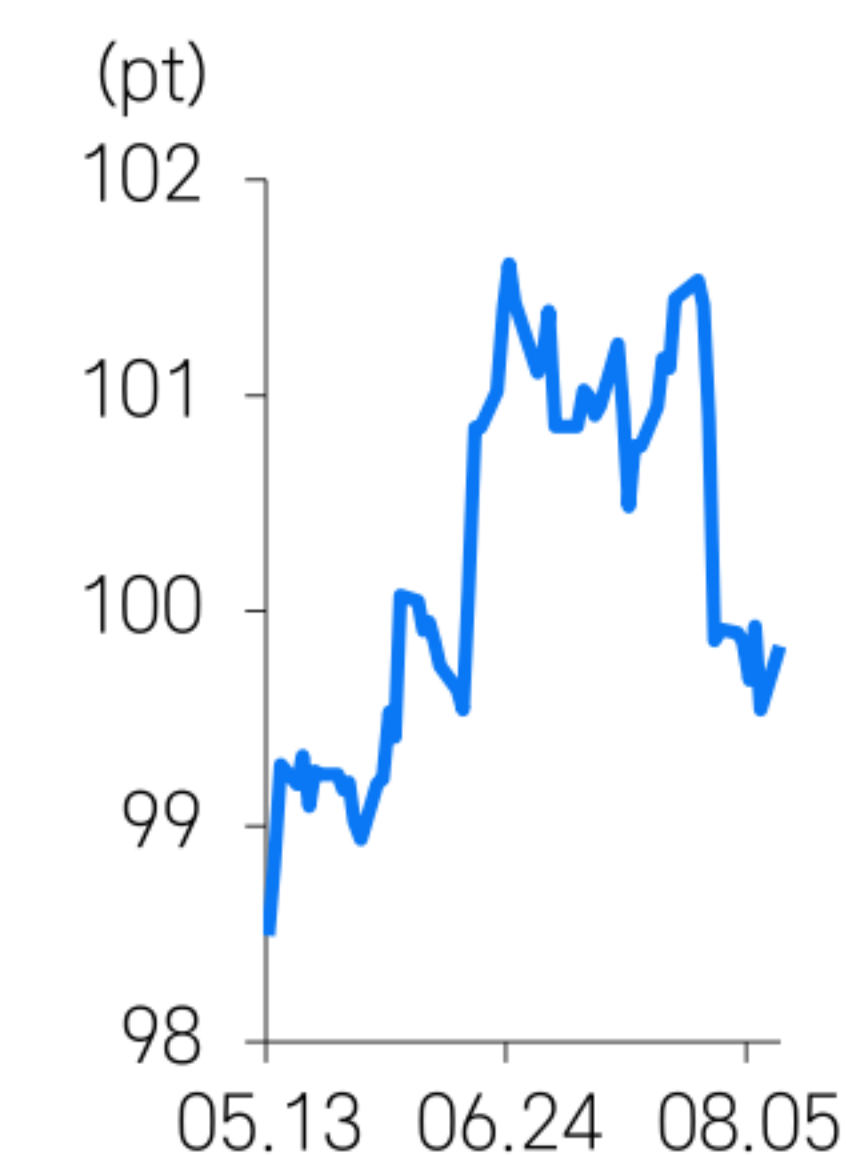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美 국채 10년물 3개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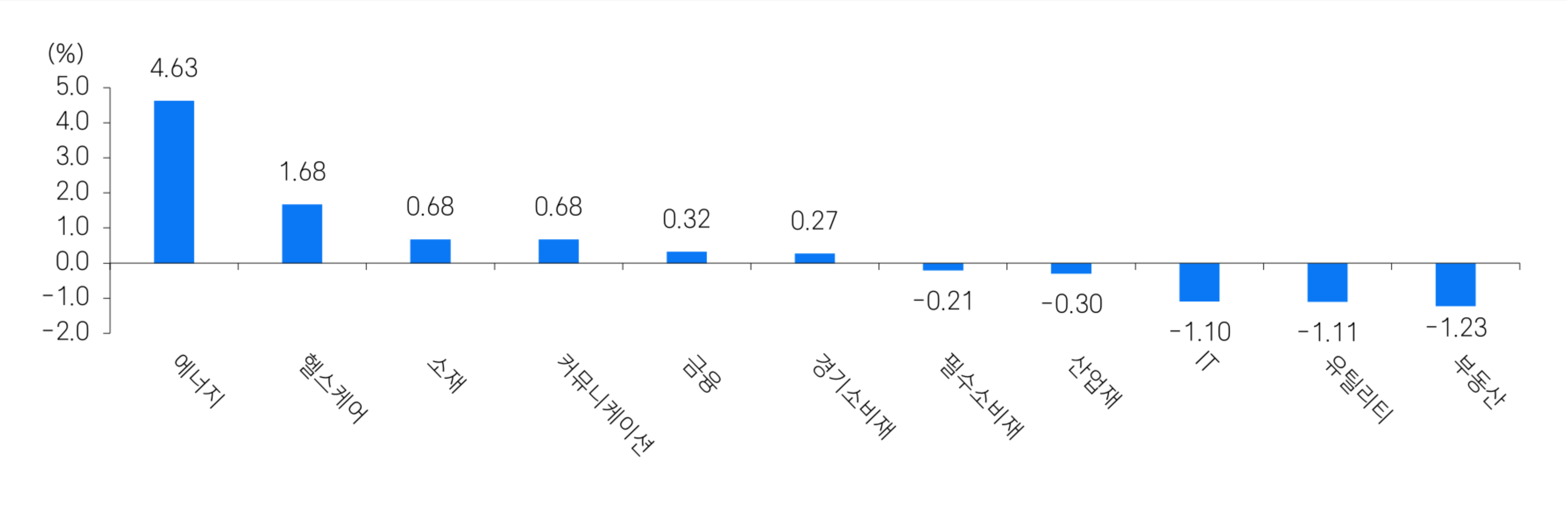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이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업종별 수익률



참고: S&P500 GICS Level 1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S&P100 수익률 상하위 종목

▲ UP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코노코필립스	4.6	에너지
2	셰브론	4.5	에너지
3	엑손 모빌	4.4	에너지
4	우버 테크놀로지스	4.0	산업재
5	일라이 릴리	3.9	건강관리

▼ DOWN	종목명	수익률	섹터
1	알트리아그룹	-4.1	필수소비재
2	인텔	-4.1	정보기술
3	퀄컴	-3.4	정보기술
4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3.2	정보기술
5	듀크 에너지	-2.9	유틸리티

참고: 섹터는 GICS Level 1 섹터 분류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국 인덱스 관련 지표

지표	수익률	1주일	1개월
MSCI KOREA ETF	-1.79	1.80	-11.1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94	4.93	-7.51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0.68	1.13	-0.64
MSCI EM ETF	-0.72	1.32	-2.59
NDF 원화 환율	-0.66	0.76	5.53

참고: ETF는 iShares ETF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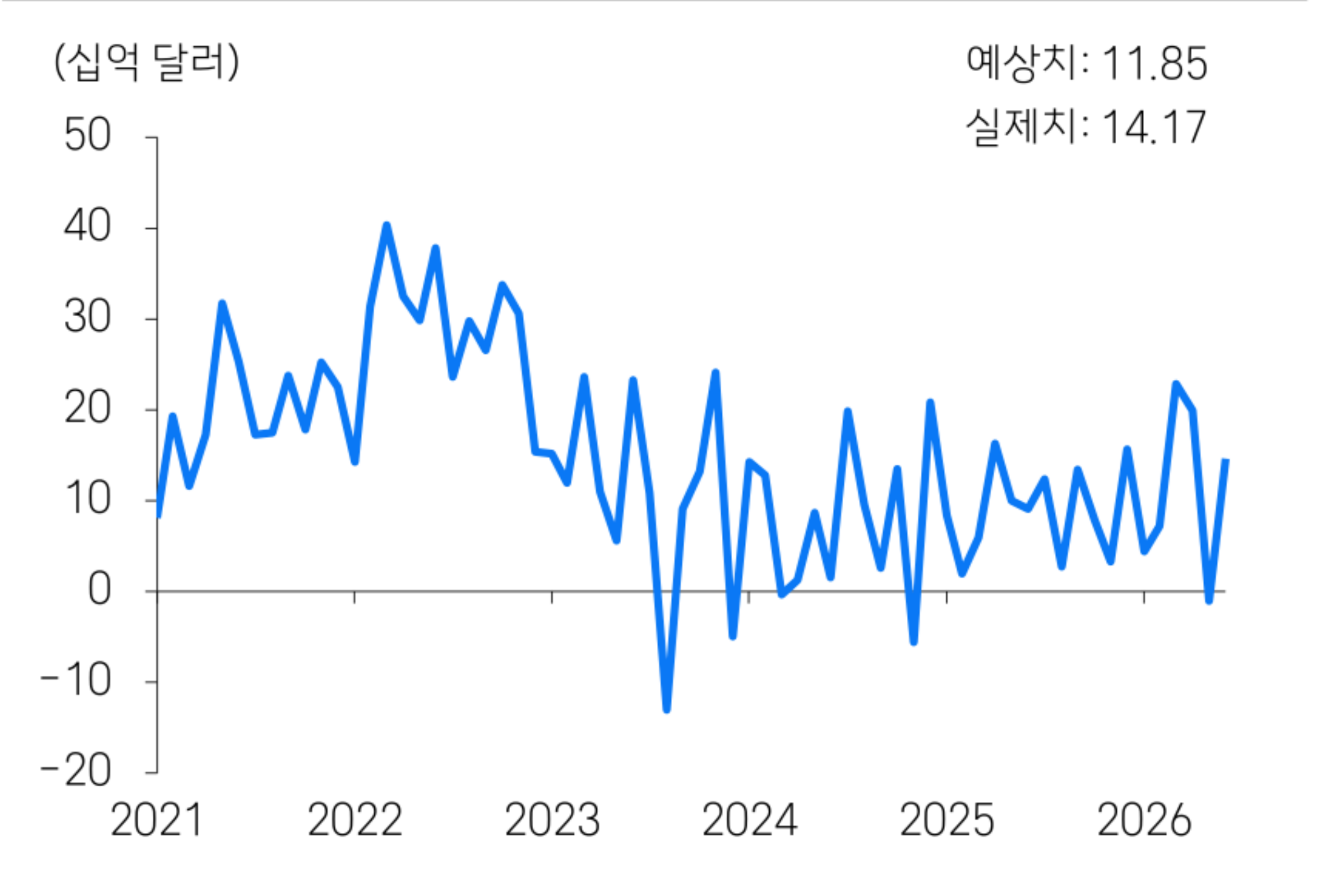
주요 경제 지표

미국 7월 뉴욕 연방준비은행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 6월 소비자신용 지수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대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Samsung Securities

Samsung Secur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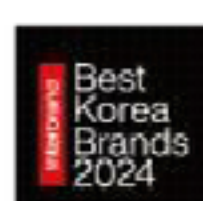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